

나주 이전 공공기관 절반 고졸 채용 '0'

12곳 정규직 3년세 700여명 늘었지만 고졸은 89명 줄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홀로 증가...전국도 8.2% 그쳐

나주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고졸 출신 정직원 채용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 확대로 지역출신 학생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고졸출신 학생들의 취업문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12곳의 정규직 채용인원은 지난 2015년 2004명에서 2016년 2148.75명, 지난해 2670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졸 출신 정규직 채용은 2015년

361.5명(18.04%)에서 2016년 428.75명(19.95%)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들어 339명(12.70%)으로 갑작스레 감소,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의 경우 지난해 1574명을 채용인원 가운데 고졸 직원은 229명(14.55%)으로 입주 공공기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채용비율은 2015년 21.60%, 2016년 20.24%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5년 38명(21.71%), 2016년 22.75명(16.76%) 수준에서 지난해 31명(6.21%)을 채용, 채용규모가 늘었음에도 고졸 채용비율은 오히려 크게 하락하는 등 갈수록 고졸 출신

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다.

한국방송통신통신진흥원 역시 2015년 2명(14.29%)에서 2016년 1명(2.56%)으로 고졸 출신 채용을 줄이다가 지난해 역대 최대급인 42명을 채용하면서도 고졸 출신은 단 한명도 뽑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역시 2015년 3명(6.97%)에서 2016년 2명(2.04%)으로 전체 채용 규모는 늘리면서 고졸 출신 비율은 점차 줄었고, 지난해 49명을 채용하면서 고졸 출신 채용은 없었다.

한국방송통신통신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해 지난해 고졸 출신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전KDN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었다. 이주 공공기관 전체 12개 기관 중 절반이 넘는 7개 기관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단 한명의 고졸 출신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체 기관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만 ▲2015년 13명(2명·15.38%) ▲2016년 17명(3명·17.64%) ▲11명(2명·18.18%) 등으로 채용규모는 적지만 고졸 직원 채용 비율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국 공공기관 및 그 부설기관 361곳의 지난해 정규직 채용인원은 2만 2560명으로, 이 가운데 고졸 출신 채용은 1858명(8.2%)에 그쳤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기술직 등 일일계 고교 출신 외에 고졸 직원을 채용하기가 힘든 여건"이라며 "대졸 출신 실업자가 많다는 점도 좁은 고졸 취업문을 더욱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63.91 (+23.80)	금리(국고채 3년)	2.16 (0.00)
↑ 코스닥	840.17 (+24.78)	↓ 환율(USD)	1105.10 (-4.00)



광주국세청, 납세자상 수상자 초청 간담회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은향)은 20일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역대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16명)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은향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성실세금 납부와 기부·봉사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제작한 '아름다운 납세자' 책자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수상자들을 소개하는 '아름다운 납세자' 책자를 세무서 민원봉사실과 납세자보호실 및 광주지방국세청 세미레저센터 비치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세미레저센터를 방문하는 학생 단체관람 등 미래세대의 세금 교육에 활용하고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

적 관심이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납세자상'은 성실납세와 더불어 헌신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한 납세자를 발굴해 2011년부터 국세청에서 매년 시상하고 있다.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에게는 공향출입국 전용심사, 납세담보 면제, 정부조달 시 가점 부여,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숨은 공로자를 적극 발굴하고, 성실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 '결혼이주여성 한국 문화교실' 4기 개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20일 오전 본점 8층에서 광주은행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4기 개강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다문화가정 문화교실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체험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이번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4기는 정립 50주년을 맞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났다.

광주남구다문화지원센터의 추천으로 선정된 20여명의 4기 수강생들은 오는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이미지 메이킹 수업, 생활요가, 한국 전통 체험, 캘리그래피 등 문화수업을 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MBTI(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프로그램을 통해 낯선 타국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자주 가질 예정이며, 광주은행 직원의 강의로 금융사기 예방법 및 다양한



금융교육도 실시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 구성원

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서적인 후원과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다문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지역의 대표 은행으로서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나주배 원예농협 허술한 농약관리

유통기한 지난 농약 농가 보급...관리 부주의 '도마'

나주배원예농협이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을 농가에 공급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나주배원예농협과 지역 수출배농가 등에 따르면 나주배원예농협은 지난 4월 영암군 신북면 금수리 수출배 재배농가 7곳에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 '푸름이' 2개와 '포워드' 15개 등 총 17개를 지급했다.

원예농협측은 지급 당일 이 같은 사실을 발견, 회수해 농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허술한 농약관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을 받은 농가들의 경우 미국 수출용 배를 재배하는 농가들로, 자칫 잘못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수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농가들은 잔류농약검사 등 수입국 기준치에 맞추기 위해 나주배원예농협 '수출 농약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지역 농가들의 경우 농협이 제공하는 약품을 의심없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농협의 농약 처방 및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주배원예농협은 이와 관련, "농가의 제보를 받고 당일 해당 농약을 회수했고 감사를 실시, 처방농약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반쯤용으로 빼놓은 농약을 실수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해 업무담당자와 책임자 2명에게 '주의촉구' 징계를 내렸다" 밝혔다.

'포워드'는 살충제로 진딧물과 나방의 피해를 막고, '푸름이'는 '혹성병'(검은별무늬병)을 예방해주는 농약으로 혹성병은 잎과 과실 꼭지 등에 검은 점이 생기면서 낙과하는 등 자칫 한해 농사를 망칠 수 있어 과수 농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다.

나주배원예농협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이 농가에 보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아우디 손잡고 수소차 개발

기술 파트너십 협약...특허·주요 부품 공유·시장 선점

현대차그룹이 세계 1위 자동차업체인 독일폭스바겐그룹과 손잡고 수소전기차 기술 개발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20일 현대·기아차와 폭스바겐그룹의 아우디가 각 그룹을 대표해 수소전기차 관련 연료전지 기술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수소전기차 기술 개발을 놓고 글로벌 자동차업체 간 합종연횡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현대차는 아우디와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글로벌 자동차업체에서는 혼다와 제너럴모터스(GM)가 합작법인을 설립, 수소전기차에 탑재되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동 생산하기로 하는가 하면, 도요타와 BMW가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수소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닛산도 포드·다임러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소전기차 기술의 확산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허와 주요 부품을 공유하고, 수소전기차 시장 선점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술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파트너십 체결을 시작으로 더 폭넓은 형태의 기술 협업 관계를 구축해 미래 수소전기차 시장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